시 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산업이 발전 한다

김 종 웅
현대사료(주) 부사장

변화가 되지 않는 개인 및 기업은 발전하거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변화는 내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 기업 및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종의 기원을 발표한 찰스 다윈이 이미 백년 전에 **"살아남은 것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말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해외 의존도가 높은 축산업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사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들었으며,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또한 국내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축산업 중 사료산업은 직격탄을 맞아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과 곡물가격 및 선임의 폭등으로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이미 몇 개의 기업이 파산을 했다. 우리는 해외 곡물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원료를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의 사료자원 확보는 단순히 기업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되며 국가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일본과 같이 미국 등 곡물 수출국의 엘리베이터 투자, 동남아 지역과 중앙아시아, 동유럽과 같은 잠재적 농업생산 가능지역의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원활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국들과의 국가간 협력 지원이 병행되어져야 한다.

단순한 토지 이용으로 얻은 수확물로는 국내 사료회사 한 달 소요량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국제곡물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할 시기이다.

또한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사료원료에 대한 수입품목의 무관세 및 저율관세 확대,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국제 사료곡물 가격 및 해상운임 변동 등에 따른 사료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료 업체에 사료원료 구매 및 사료 제조시설자금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에게 국내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이미지 인식과 신뢰 개선이 필요하다.

바로 얼마전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8년만에 발생한 구제역은 온 나라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우제류인 축우와 양돈의 소비 가격이 급락해 시장이 혼란스럽다.

또한 중국에서 발생한 분유내 멜라민 파동으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은 적도 있다. 다행히 현재 각 자조금에서 축산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 대중 매체를 이용하고 녹색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 시켜 소비자들로부터 호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한우의 경우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도를 높여 주었다. 앞으로 양돈과 같은 다른 축종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겠다.

셋째, 축산 폐자원의 이용이다.

자원 싸이클의 흐름에서 볼 때 분뇨는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해양 투기로 많이 버려 왔으나, 2012년부터는 이 또한 금지될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해양의 오염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 옴을 볼 때 이는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다행히 일부에서 축산 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액비화 사업은 액비 살포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축산 단지 조성과 분뇨의 처리 방안을 위한 사양 기술 연구가 필요하며, 자원의 순환이란 차원에서 경종 작물 농업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악취 방지가 가능한 분뇨의 생석회 처리(피롤농법)와 같은 신기술 도입 및 적용이 필요 하다.

넷째, 언제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만 바라보며 사업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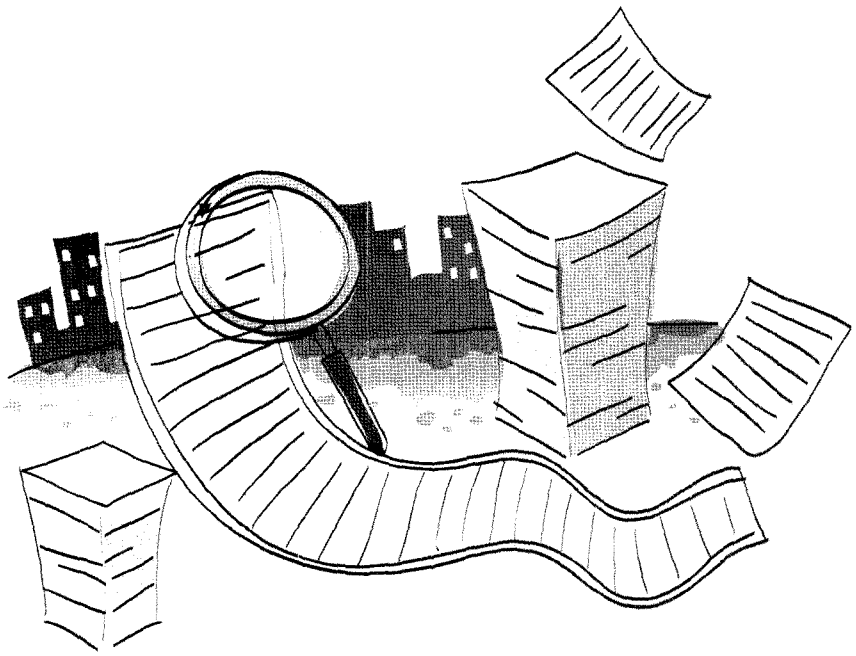
사료회사는 현재 해외에 진출을 많이 해 있지만 최종 산물인 우리 축산물의 수출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의 식 문화상 선호 부위는 정해져 있어 비선호 부위에 대한 가공 기술과 수출을 위한 제품 개발로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마지막으로, 축산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

우리의 성적을 보면 가축생산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유럽을 비롯한 축산 선진국에 비해서도 1.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특히 양돈의 경우 생상성 지표인 MSY(모돈 연간 출하 두수)를 비교해 보면 2009년 기준 (14.8)두로 축산 선진국(네덜란드(24.7두), 덴마크(24.5두))에 비해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료산업을 포함한 축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축산업이 당면한 숙제를 풀고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육성과 영입이 필요하다.

축산업은 축산물 생산비의 30~70%정도를 배합사료가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 업계와 축산 농가의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국내 사료산업은 축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사양 관리 기술의 발전, 친환경 축산의 필요성 등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축산 선진국들과의 FTA 등으로 인한 세계화의 경쟁구도 속에서 축산업의 구조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존립 기반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늘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야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과거의 낡은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변화야 말로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속한 조직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진단해 보고 개선 및 변화를 통해 경쟁력이 있는 축산 선진국가가 되었으면 한다.